

지역 소식통

부안군, 청렴 의식 함양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부안군은 24일 군청 2층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부서장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증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률을 주제로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실제 적용 사례로 구성된 퀴즈 풀이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또 대회 참가자를 위한 부서별 응원전을 통해 부서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들도 함께 청렴 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부서장들이 솔선수범해 참가해 전 직원이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정읍시(시장 이학수)는 24일 신태인체육관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대형 화재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읍소방서와 16개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총 450명이 참여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재난 유형에 맞춰 진행된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협력 대응력을 높이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훈련 시나리오는 △위험물 탱크(LPG) 폭발 △신태인체육관 붕괴 및 대형 화재 발생 △전기차 화재 등 현실적인 재난 상황을 반영했다. 훈련은 최초 상황 접수 및 전파부터 긴급구조통 제단 가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단계별로 세심하게 진행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 발전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정읍시·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국비 확보 방안·시정 주요 현안 사업 논의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협의회에서 2025년 국가 예산안의 사업인 △말목진터 문화광장 조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역전지구 대 이전 건립 등 총 14건의 사업(국비 요구 251억 원)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심사 중인 동물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장병동 뉴빌리지 사업 등 9건과 도·군의사업 18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빌려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금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창의적인 내용을 담아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긍정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기재부에서 반영된 예산은 확실하게 지키고 미반영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베트남의 주요 언론사, 여행사 관계자,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팜투어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정읍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며 정읍의 매력을 폭넓게 봤다.

'정읍의 명소·맛에 반했어요'

베트남 팜투어단, 정읍 주요 관광 명소 탐방

베트남의 주요 언론사, 여행사 관계자,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팜투어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정읍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며 정읍의 매력을 폭넓게 평가했다.

첫날 팜 딘 히엡 하노이모이 신문사 편집국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팜투어단은 정읍의 유명 맛집인 이화담과 쌈화차 거리를 방문해 정성껏 준비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쟁반과 친한 풍미를 경험했다. 이어 무성서원, 김병관 고택, 구월초 지방정원, 이양(달빛)사 링숲 등 정읍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역의 자연 경관에 감탄했다.

이번 팜투어는 정읍시를 비롯해 고창군, 부안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관광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개 시·군은 25일까지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문화 체험을 소개하는 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정읍의 매력을 소개하고, 정읍에 거주하는 베트남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 첫 방문자가 정읍"이라는 팜투어단의 말에 "한국의 첫 방문자가 정읍이라고 하니 매우 기쁘다"고 답하는 등 이어지는 방문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특히 정읍의 등록 외국인 중 41%가 베트남 출신임을 언급하며, 기존 농업 교류를 바탕으로 앞으로 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팜투어는 정읍시를 비롯해 고창군, 부안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관광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개 시·군은 25일까지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문화 체험을 소개하는 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글로벌 홍보 총력

관광·특산물 등 세계에 알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고창의 관광과 특산물, 기업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제외동포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서 온 2000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1000여 명의 국내 기업인들이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고창군은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주제로 한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고창시립력단지 분양을 비롯해 고창의 주요 관광지, 특산물, 고향시랑기부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고창의 먹거리와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고창 지역 기업들이 세계 수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며 "고창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집중 홍보

고창군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검진대상자 1:1 전화 및 문자 안내 등 건강검진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64세 중 짹수년도 출생자이다.

공통 검진 항목으로는 △진찰 및 상담 △신체 체크 △흉부 방사선검사 △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

나 검진이 가능하며, 관내 검진기관으로는 고창병원, 석정월파크병원, 이진홍내과 의원, 임국희내과 의원, 정내과 의원 협력의원이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 대부분은 농산물우수관리(CAP) 인증을 취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에도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수박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고창 미니수박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7일에는 '고창 미니수박 풍물회'를 열어 수박 품종별 품질 평가를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니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미니수박 토양 및 양분 관리 기술 현장실증 연구사업(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공동 연구)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회원 관리로 재배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1일 전국 최초로 2024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장에서 지역 농산물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